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를 통해 본 『성서』와 『포폴 부』

A Comparative Study of the Bible, Popol Vuh and the Creation Myth of Jeju Island

저자 (Authors)	신연우 Shin, Yeon-Woo
출처 (Source)	비교민속학 57 , 2015.8, 109-135 (27 pages) Asian Comparative Folklore 57 , 2015.8, 109-135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교민속학회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16385
APA Style	신연우 (2015).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를 통해 본 『성서』와 『포폴 부』. 비교민속학, 57, 109-135.
이용정보 (Accesse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7.17.194.105 2015/12/28 13: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제주도 창세신화의 열개를 통해 본 『성서』와 『포폴 부』*

신연우**

목 차

- I. 머리말
- II. 제주도 <초감제>의 창세신화 열개
- III. 기독교 『성서』의 경우
- IV. 중앙아메리카의 『포폴 부』
- V. 신화적 가치관의 비교
- VI. 맺음말

[국문초록]

노드롭 프라이는 성서를 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그 통일적 원리는 의미의 원리보다는 형태의 원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의 창세신화와 기독교의 성서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포폴 부를 비교 검토했다.

제주도의 창세신화는 “1. 천지개벽(천지창조) - 처음 상황, 2. 천지 재창조- 문제와 해결 시도, 3.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 - 주인공 탄생, 4.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 - 문제 해결, 5. 지상적 질서 세움 - 새로운 질서와 미완의 문제”의 다섯 단계를 가진 구조를 보여준다.

이 열개를 기준으로 성서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다. 예수의 경우도 천지개벽(천지창조)의 처음 상황, 악을 해결하는 일차적 시도인 천지 재창조, 실패를 해결할 주인공이 천부지모의 아들로 탄생하는 대목까지 많이 유사하고, 다음의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하는 것과 새로운 지상적 질서 세우기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구조는 같고 구조 내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포폴 부』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다섯 단계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천지창조로부터 재창조, 천부지모의 아들이 탄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의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고 어떤 부분을 상세화하고 강조하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15-073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는가 하는 점도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열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인물의 영웅적 활동을 그리는 점에서 닮았다. 이 인물은 지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상적 존재여야 하기에 지상의 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지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기에 하늘의 아버지가 요구된다. 여기까지는 공통되지만 한데, 이후 이 인물의 활동 내역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노정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 세상을 차지했기에 이 세상에는 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에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악에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는 예수가 제시한 방안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중앙아메리카의 고대문명들은 가혹한 희생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신화에서 보여준 바 쌍둥이 형제가 세상의 악을 완벽하게 징치하고 자신들은 해와 달로 좌정했으므로 이 정화된 세상이 더러워지거나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사회의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라는 작은 섬의 신화 구조 분석에서 시작한 작업이 근동의 『성서』와 중앙아메리카의 『포폴 부』 신화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살핌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 가치관에 접근해보았다. 신화는 사실을 전하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하지는 것이다. 그 가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더 탐구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제주도, 창세신화, 초감제, 성서, 포폴 부,

I. 머리말

특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보편적인 것과 통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정서를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극동 우리나라에서도 남쪽 끝 섬나라인 제주도에 전해지는 신화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 50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단군신화도 보편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된 성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낮설게 여기는 제주도의 신화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로 전해지는 건국신화가 우리 신화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제주도 곳에서 심방들이 노래로 전해온 창세

서사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 무속도 종교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비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제주도 출신의 소설가 현길언이 보여주었다. 그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와 창세기를 비교하여 창세, 분리와 통합, 신의 강림, 형제다툼의 네 가지 모티브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¹⁾ 정밀한 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제주도 신화와 기독교 신화에서의 동질성을 지적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창세기에만 한정시키기보다는 큰 틀의 기독교를 비교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동일한 맥락에서 이 두 신화가 중앙아메리카의 『포폴 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간주되어 이 비교 연구를 시도하려 한다.

같기만 하거나 다르기만 해서는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을 때만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기독교와 제주도의 무속은 다른 면이 많다.²⁾ 『포폴 부』와는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일면에서는 유사한 점도 있다. 특히 이야기로서 또는 신화로서의 맥락 또는 구조에서는 이야기의 보편 구조라는 측면에서 비교해볼 근거가 있다. 이야기의 측면에서 노드롭 프라이는 『성서』를 문학적으로 보아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서는 천지창조와 함께 시간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성서』는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역사, …… 또한 많은 구체적인 이미지들도 있는데 …… 그 통일적 원리는 의미의 원리보다는 형태의 원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³⁾ 『성서』를 문학의 관점에서 살핀 프라이의 뒤를 이어서 신화 구조의 측면에서 제주도 창세서사시와 기독교의 『성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함께 살펴 볼 『포폴 부』는 지금의 과테말라 지역에 있던 키체 왕국에 전해지던 창세서사시이자 역사서이다.⁴⁾ ‘공동체의 책’ ‘성스러운 책,

1) 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195~225쪽.

2) 특히 창조주의 유무 상황이 큰 차이이다. 창조신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화적 맥락과 의미는 다를 것이다. 이 점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노드롭 프라이, 김영철 옮김, 『성서와 문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8쪽.

4) 17세기에 스페인 선교사가 문자로 적은 것을 이용하지만, 이미 기원전 600년~기원후 300년의 “100개 이상의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포폴 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정혜주, 「태초에 빛이 있었다: 마야의 천지창조 신화」, 『이베로아메리카』 7권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조언의 책⁵⁾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1부와 2부에서 창세와 영웅을 주소재로 하고 있어 이를 다루기로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길언의 글 외에 제주도 창세신화와 『성서』 또는 『포폴 부』를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한국 창세신화 전반과 성서를 비교한 것도 있고⁶⁾ 중국 설화와 성서 창세기를 비교한 논문도 있다.⁷⁾ 이 둘은 모두 처음의 혼돈, 인간창조, 홍수 신화를 차례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태인의 글은 중국의 반고 설화가 창세기의 여호와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신화에 머물렀다며 안타깝다고 한다.⁸⁾ 몽골 설화와 창세기를 비교한 논문도 있다. 이 논문은 “태초의 무질서, 태초부터 신이 존재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면서 창조가 시작된다. 수면 위에 질서가 존재한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 신은 창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신은 창조물이 변성하길 바란다.”는 7가지를 공통 신화소로 추출하는 내용이다.⁹⁾ 이들은 모두 신화소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유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제주도 신화로 논의를 집약하고 신화소의 대응이 아니라 서사구조를 비교하며,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서사 구조와 관련해서는 조동일은 〈베포도업침〉이 창세신화적이라면, 〈천지왕본풀이〉에는 영웅신화적 모습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¹⁰⁾ 박종성도 제주도 신화를 살피면서 창세서사시와 영웅서사시의 변천과 수용의 두 축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¹⁾ 신연우는 제주도 굿의 처음 제차인 초감제 안의 무가인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창세-

2005, 33쪽.

5) 고혜선 옮김, 『마야인의 성서 포폴 부』, 문학과지성사, 1999, 17쪽; 정해주, 위의 논문, 32쪽.

6) 강성열, 『성서의 창조기사와 한국의 창세신화』, 프리칭아카데미, 2009.

7) 양다혜, 『중국창세신화와 성서〈창세기〉 비교연구: 천지창조 인류창조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97.

8) 이태인, 『창세기와 중국 창조신화』, 『창조론 오픈 포럼』 8권1호, 전자저널 논문, URL: (<http://www.dbpia.co.kr/Article/3392022>) 2004년, 2월, 99쪽.

9) 정영찬·김용범, 『문화적 할인의 관점으로 본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비교 연구』, 『동아시아 고대학』 37, 동아시아고대회, 2015, 295쪽.

1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62쪽.

11)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356쪽.

영웅 신화로서의 구조를 보다 명료하게 밝혔다.¹²⁾ 『성서』 첫부분에서 창세 이야기를 부각한 것과 신약에서 예수 이야기를 영웅적 면모로 이해하면¹³⁾ 우선 둘의 비교의 첫단추가 켜인다. 이를 상세화해보자.

II. 제주도 〈초감제〉의 창세신화의 열개

제주도 〈초감제〉에는 두 편의 서사무가가 연행된다.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이다. 심방의 구연에 따라 조금씩 내용에 차이가 있고 둘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베포도엮침〉의 시작은 천지개벽이고 〈천지왕본풀이〉의 마지막은 인간 세상에 악이 있게 된 연유에 대한 해명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구조적 열개이다.

〈베포도엮침〉은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한다. 박봉춘 구연본이 상세하다.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잊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다
 하늘과 땅이 맛 붓든 것이 혼합이요/ 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잊떠한 것이 개벽이노/ 하늘과 땅이 각각 갈나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어떻게 되었스리라
 하늘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으로부터 돌이슬이 소사나와서
 음양이 상통한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
 하늘머리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으로 열이고
 따머리는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축방으로 열이고
 사람머리는 병방으로 병자년 병자월 병자일 병자시에 열이시고

12) 신연우,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357~408쪽.

13) 오토 랑크는 사르곤 대왕, 모세, 페르세우스, 길가메쉬, 헤라클레스, 지그프리트 등 15명의 영웅의 일생을 살펴본 연구에서 예수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Otto Rank,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A Vintage Book V70, 1960, pp.50~56.

동방으로는 이엽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출리를 치고
남북방으로는 나래를 들이고/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¹⁴⁾

처음 상황인 천지개벽은 창조주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맞붙어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현상을 제시한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하늘 땅 그 사이의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이 모습을 닭에 비유했다. 동쪽으로는 잇몸을 들고 서쪽으로는 꼬리를 치고 남북방으로는 날개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이 정해졌다. 위 아래와 동서남북이라는 기본 질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나 달이 없어서 “밤도 캄캄 낮도 캄캄”했는데 앞이마 뒷이마에 눈이 둘 씩 있는 청의동자가 남방국에서 태어나고, 그의 눈 둘을 취해서 옥황에게 축수한즉 해와 달이 둘씩 생겨났다. 그 결과 사람이 살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금세상은 밝았으나
햇돌에는 인생이 자자죽고
달빛해는 실허죽어서 인생이 살수 업슨직 (395쪽)

자연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곳이다. 자연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자연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 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초기 인간이 살기에는 자연이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었고 고통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는 우주 창조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간을 위한 세계의 창조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야 했다. 이를 위해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대별왕 소별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고 대개는 별 설명 없이 대별왕 소별왕 또는 유은거처, 환선생 거

14) 박봉춘 구연 〈초감제〉,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31쪽;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394쪽.

저님 등이 활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없애준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자연의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수명장 자라는 악인이 등장한다. 수명장자의 악은 몇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위의 해 둘 달 둘과 연관 있다. 인간을 위해 해와 달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천지왕은 지상에서 총명부인 집에 머물면서 총명부인과 배필을 맺게 된다. 그 저녁에 가난한 총명부인이 천지왕 드릴 밥을 짓기 위해 이웃인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리러 간다. 그 쌀로 지은 밥을 먹다가 천지왕은 돌을 씹게 되고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게된다.

괘씸하다. 괘씸하여. 수명장제가 없는 인간덜 대미(大米) 꺼 주령ㅎ민 백모살(흰 모래) 허꺼(섞어)주고, 없는 인간들 소미(小米) 꾸레 오라시민 흑모살 허꺼주고, 없는 인간덜 쫄 꾸레 오라시민 큰 말로 받아당 죽은말(小斗)로 폴앙 부제(富者) 되니

수명장제 뜯덜은 없는 인간덜 검질(잡초) 메여 도령허영, 오라그네 검질 메여주며는 조은 장은 지네 먹곡 고린 장을 주어서 부제 돼엿수다. 수명장제 아들덜은 믱쉬(牛馬) 물을 맥여 오령ㅎ민 툄 발통에 오좁 글겨두고 믱쉬 물 맥여 오랏수명 영ㅎ명 사웁네다.¹⁵⁾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다. 이무생 구연본에는 수명장자가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명장자는 아버지가 예순살이 되자 식사를 하루 죽 한사발로 줄여서 준다. 아버지가 배고파 못살겠다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사름 혼대가 서른인디,/ 아버진 금년이 예췌,

두 대를 살아시니 너미 살았수다.

아버지가 두 대를 살아도/ 더 잘 먹을까진/ 죽영 저싱 가도/ 하다 이상에

15)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1~42쪽; 김현선, 위의 책, 432쪽.

귀신으로 먹으레 오질 말키엿 하민/ 죽엿 삼년상에 식상 식술 놓는 몫, 잘 대접
홀 쿠다¹⁶⁾

결국 아버지는 죽은 후에 제사를 얻어먹지 않겠다는 증서를 쓰고 나서야
밥을 얻어 먹다가 예순 한 살에 저승으로 가서 오지 못한다. 이는 부모와 조
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수명장자의 악행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수명장자는
하늘에 대해서도 거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인간이 수명장자가 사웁는데, 무도막심하되
말 아홉 쇠 아홉 게 아홉이 있어서, 사나우니
인간사람이 욕을 보아도, 엇절 수 업사웁는데
수명장자가 하로는 천왕께 향하야 아뢰되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니
천주왕의 팻심히 생각하야, 인간에 내려와서
수명장자 문박개 청버드낭 가지에 안잔
일만군사를 거나리고 승험을 주되
소가 지붕을 나가서 행악해하고
숫과 푸느채를 문박기로 거러당기게 하되
수명장자 조금도 무서워 아니하니¹⁷⁾

수명장자는 없는 사람들에게 행악을 하고 부모 조상을 섬길 줄 모르고 하
늘의 천지왕에게도 대든다. 모두 지상의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명장자를 악인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천지왕은 이런 수명장자를 징치하러
내려온다. 문창헌본과 정주병본에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불로 징치한다. 화
덕장군을 불러 그 집을 불태우게 한다. 박봉춘본에서는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16)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229쪽. 김현선, 위의 책, 439쪽.

17)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288쪽; 김현선, 위의 책, 403쪽.

징치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광포설화인 장자못 전설을 고려하면 이는 악한 장자를 징치하여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신화소의 일부이다. 해와 달이 들쭉 있거나 수명장자같은 악인이 있는 세상은 잘못되었다. 천지개벽 또는 천지창조가 있었는데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불로 징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함경도의 창세무가에 들어 있는 장자못 유화에서는 이 경우 불이 아니라 물이어서 보다 친숙하다.¹⁸⁾

창세가 있었는데 그 자연이나 인간사회가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면 재창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해와 달을 하나씩 조정하는 일월조정 화소와 수명장자로 대변되는 악인들의 세상을 멸망시키는 수명장자 징치 화소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천지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는데 천지왕의 아들로 나중에 나타난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 끝에서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일월조정을 하는 각편은 김두원, 정주병, 이무생 구연본이다. 이와 함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 대부분에 나타나는 화소는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여성과 합궁하여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 이해해야 할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지왕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상에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 같은 문제도 반복되고 다른 문제도 새로 생길 것이다. 하늘의 존재인 천지왕은 우주의 주인일 수 있어도 지상의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지상의 문제는 결국 지상의 존재가 해결해야 한다는 신화적 발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지상의 존재만으로는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상의 힘을 넘어서는 초월적 힘을 가진 존재라서 지상의 문제를 위에서 큰 시각으로 내려다볼 수

18) 강춘옥, <생긔>, 임석재,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문교부, 1966; 김헌선, 위의 책, 276쪽.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상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적으로 의식하는 존재이면서 지상의 존재를 넘어서는 초월적 힘 또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신화적 인식인 것이다. 이 둘을 충족하는 것이 하늘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는 것이다. 이 아들은 지상의 인간이기에 인간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상적 존재의 인식과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상징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원리적인 측면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구체적이고 잡다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하나일 것이다. 하늘은 하나이고 땅은 萬象이다. 땅은 만물을 낳기에 여성적이라고들 하고 원리를 이루는 이치는 흔히 남성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이 두 자질을 생득하고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은 지상의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한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씩이라는 자연으로 인한 문제들과 수명장자로 대표되는 악인의 문제가 지속된다. 대별왕 소별왕은 이를 해결한다. 이 해결 전에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하늘로 아버지를 찾아가 아들임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똥오줌을 싸면서 아기 울음을 운다. 큰어머니 굴중이(속바지) 한쪽으로 들어가 다른 쪽으로 나오기도 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여러 종교나 사회에 보이는 입사식의 모습 그대로이다.

<천지왕본풀이>가 특별한 것은 결말부분이다. 세상의 악을 정치한 대별왕 소별왕은 이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다툰다. 몇가지의 수수께끼를 거쳐서 꽃피우기 내기를 한다.

대별왕은 묵농성이잠을 깊이 자고 소별왕은 예시잠을
 자시다가 대별왕이 즈을 깊이 자니 대별왕 앞이 꽃동이는
 소별왕 앞대래 땡겨다놓고 소별왕 앞의 꽃동이는

대별왕 앞대래 밀려놓고 “설운 성님, 그만큼 좀 자시고
 일어납서.” 이말흐니 대별왕이 일어나고 보오시니
 꽃동이는 벌써 바꾸와놓았구나.
 형님이 아시(아우)보고 꽃동이를 바꿔놓았다 아니흐고
 “설운 아시 금 시상법 지녀서 살기랑살라미는 금 시상법은
 배에는 수적도 많하고 믱른되는 강적도 많흐고
 유부녀 간통 간부 갈런 살린살이 많흐리라.”¹⁹⁾

강일생 구연본에서는 귀신과 생인이 섞여 있어 어지럽고 제 짐승이 말을 하여 혼란스럽고, 인수적이 많고, 일가 제족이 불목(不睦)이 많을 것이고, 형제가 싸울 것이고, 욕심이 세어 도둑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²⁰⁾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은 맑고 깨끗하고 공정한데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흐리고 불공정하고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지금처럼 악하게 된 연유를 해명하지는 신화이다.

신연우는 이를 이렇게 도식화해 정리하고 있다.

- | | |
|-----------------|---------------------------------|
| 1. 천지개벽(천지창조) | — 처음 상황 |
| 2. 천지 재창조 | — 문제와 해결 시도 |
| 3.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 | — 주인공 탄생 |
| 4.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 | — 문제 해결 |
| 5. 지상적 질서 세움 | — 새로운 질서와 미완의 문제 ²¹⁾ |

왼쪽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구성을 따라 화소를 적은 것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보다 보편적인 양상이 되도록 확대 적용해본 것이다. 오른쪽 항목과 같은 문제 해결 방안이 신화적 발상의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19)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자료편, 금화사, 1973; 김현선, 위의 책, 418쪽.

20)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임석재, 『제주도에서 새로 얻은 몇가지』, 『제주도』 제17호, 1974; 김현선, 위의 책, 424쪽.

21) 신연우, 앞의 논문, 395쪽.

있다. 1, 2, 3항은 창세신화가 담당하는 몫이며 3, 4, 5항은 영웅의 활약과 성취를 보여준다. 영웅의 능력은 창세의 능력을 가진 초월적 힘에 근원을 두며, 창세로 빚어진 세계 그 자체는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하므로 영웅에 의해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된다.

Ⅲ. 기독교 『성서』의 경우

『성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 시작은 혼돈이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²²⁾

하나로 얽혀 혼돈인 처음의 상태를 나누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온다는 화소는 창세신화에 흔하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로 뚜렷하게 제시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만 세상이 처음 창조 또는 개벽의 순간을 갖는다는 인식은 공통이다. 이후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화소로 이어진다. 여기까지는 위의 1. 천지개벽/천지창조 단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에덴동산에는 뱀도 있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창세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6장 4-5절)하는 상황

22) 창세기 1장 2~5절, 『한일대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2002, 앞으로 성서 인용은 모두 이 책에서 한다.

에 이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짐승들만을 남기고 온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 정화하는 거대한 홍수를 일으킨다. 이는 2.항의 천지 재창조 화소와 같은 것이다.

노아 홍수로 세상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같은 창세기 18장-19장에는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악인이 너무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하여 멸망시킨다. 이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장자못 전설과 같은 유형이다. 제주도 신화에서는 수명장자 집을 불로 징치한 것과도 같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또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유사한 인식이다. 그 악의 기록이 이후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악과 어리석음, 우상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다. 『구약성서』는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인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²³⁾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 끝없이 유전되는 이스라엘의 악을, 나아가서 세상의 악을 근절하는 방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상의 인간 여성이어야 했다. 널리 알려진 부분이지만 마태복음의 해당부분을 인용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²⁴⁾

23) 말라기 3장 6절.

24) 마태복음 1장 18~21절.

서사문학의 관점으로 말하면 주인공의 탄생 부분이다. 예수는 지상의 문제, 지상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는 지상의 여성이고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설정이다. 우리가 본 대로 이는 ‘3.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이라는 단락을 충족하는 화소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왜 굳이 지상의 어머니 마리아를 필요로 했는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거나 아담을 만든 것처럼 예수를 만들어 지상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이미 하나님은 직접 세상의 문제에 개입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지상의 악은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상의 문제를 태생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갖는 지상적 인간의 탄생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지상의 인간은 지상적 능력만을 가진 지상의 인간이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상적 능력을 초월하는 힘과 인식을 가져야 했다. 이어서 예수는 대별왕 소별왕처럼 다시 태어나는 의례를 거행한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²⁵⁾

여기는 세례(洗禮)라고 되어 있지만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침례(浸禮)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강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의례이다.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아들 인정을 받는다. 이는 이제까지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자아가 아버지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아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입사식 제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대별왕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기 흥내를 내고 다시 태어나서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25) 마태복음 3장 13~17절.

대별왕 소별왕이 해와 달을 조정하고 수명장자를 징치하듯이 예수도 지상의 악을 일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그 당시 유대인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식민지 백성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해결의 길을 다른 방향에서 제시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할 때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했다.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자,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²⁶⁾

또한 예수는 악한 바리새인을 정죄하여 신앙적으로 순수해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다. 바리새인의 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오랜 악을 되풀이하는 것이었고 예수는 이들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꾸짖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다. 예수는 사실 이것이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초기부터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쳤고 후기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²⁷⁾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가져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유명한 주기도문으로 나타났다. 대별왕 소별왕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하는 반복되는 구도였는데 예수는 이처럼 지상에서는 문제가 반복 지속되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늘의 질서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더 철저한 종교적 면모를 구현했다고 하겠다.

이울러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적대적 관계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싸웠던 대별왕과 소별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의 반복은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하나의 예는 이렇다.

26) 마태복음 4장 1~11절.

27) 요한복음 18장 3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²⁸⁾

이러한 싸움에서 예수는 이 세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은 이 세상에는 악과 무질서가 지속될 것이다. 예수가 와서 한 일은 악 자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의 희망을 주어 이 세상의 악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적어도 기독교인에게는 지상적 삶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고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제시한 방법이었다.

정리해보면 예수의 경우도 천지개벽(천지창조)의 처음 상황, 악을 해결하는 일차적 시도인 천지 재창조, 실패를 해결할 주인공이 천부지모의 아들로 탄생하는 대목까지 많이 유사하고, 다음의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하는 것과 새로운 지상적 질서 세우기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구조는 같고 구조 내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IV. 중앙아메리카의 『포폴 부』

『포폴 부』도 천지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땅이 아직 없이 하늘과 바다만 있고 “물은 휴식 중이었고, 바다는 고즈넉했고, 혼자 있었고, 평온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칠흑같은 밤의 정지와 고요뿐이었다.”²⁹⁾ 이 때 빛 속에 싸여 물 속에 있던 삼위일체의 신이 말로 창조를 시작했다. 땅아!라고 말하는 순간 땅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산이며 구

28) 마태복음 16장 1~4절.

29) 고혜선 옮김, 『미야인의 성서 포폴 부』, 문학과지성사, 1999, 20쪽.

름, 숲 등이 생겨났다. 신은 동물을 만들었으나 신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신들은 다시 나무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무인간은 영혼이 없어서 역시 이해력이 없었고 창조자를 기억하지도 고마움을 느끼지도 못하였다. 결국 신들은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나무인간을 없애버렸다.

이 부분은 최초의 창세가 있었으나 완벽하지 못해서 홍수를 통해 재창조를 시도한다는 틀에 부합한다. 특히 이 경우 나무인간의 악행이 부각된다. 이들은 신을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물들 나무들 향아리 냄비 솥 개 등등이 일제히 일어나 이들을 때린다. 가령 냄비와 솥은 말한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만 주었어. 우리 입과 얼굴에는 항상 검멍이가 묻어 있었어. 너희들은 우리를 늘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았지. 마치 우리는 고통도 모르는 존재인 양 우리를 태웠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를 태울테니 맛 좀 봐라.³⁰⁾

수명장자를 징치할 때 솥과 냄비가 마당을 걸어다니던 모습과도 유사한 느낌을 준다.³¹⁾ 그런데 『포폴 부』에는 홍수에 이어 바로 수명장자와 유사한 인간을 제시하고 징치하는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다. 그는 ‘부콕 카키스’ 즉 ‘일곱 앵무새’라는 인물이었는데, 수명장자가 하늘의 천지왕도 나를 못잡아 갈 것이라고 큰소리 친 것처럼, 자신이 태양이고 달이라며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겼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도 아이들 400명을 죽이는 등 못된 행동을 했다.

이제 이야기는 일곱 앵무새와 두 아들을 징치하는 쌍둥이의 영웅적 활약으로 이어진다. 이 쌍둥이는 후나프(사냥꾼)과 익스발랑케(호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들이었다.”³²⁾ 그러나 뒤이어 나올 2부에서는 이들의 출생과 활약이 지상과 지하세계로 그려져 있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결국 일곱 앵무새와 두 아들을 죽인 쌍둥이 소년에 대해서 1부 끝에서 “지금부터는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30) 고혜선, 위의 책, 32쪽.

31) “소가 지붕을 나가서 행악케 하고/ 솥과 푸느채를 문박기로 거러 당기게 하되”,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赤松智城/秋葉隆, 앞의 책, 231쪽; 김현선, 403쪽.

32) 고혜선, 앞의 책, 34쪽.

대해 화제를 돌려보기로 하자.”고 하여 같은 인물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한 지상의 악에 대한 웅징의 홍수 즉 천지 재창조, 그리고 지상의 악으로 상정된 나무인간과 일곱 앵무새의 징치가 있었다. 지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2부에 전개된다.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한 것이 『포폴 부』의 특징이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훈 후나프인데 그는 그의 다른 형제와 공놀이에 빠져있었다. 지하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공놀이를 시끄럽게 했는데, 지하세계의 군주들이 이들을 초청해서 쉽게 죽여버렸다. 훈 후나프의 잘린 머리를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갑자기 아름답게 맺혔다. 귀족의 딸인 익스키키이라는 소녀가 그 나무를 보러 가서 열매를 맛보고 싶어했고 훈 후나프의 해골이 소녀의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 인해 소녀는 임신하게 된다. 훈 후나프는 소녀에게 땅 위 세계로 가라고 일러준다. 소녀는 땅 위 세계로 가서 옥수수를 따지 않고 옥수수로 푸대를 가득 채우는 신이함을 보여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곧 후나프와 익스발랑케 쌍둥이 형제를 낳는다.

쌍둥이 형제도 아버지처럼 지하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공놀이를 했고 역시 지하세계 군주의 초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 이들은 지하세계의 구조와 습성을 잘 알고 있다. 지하세계로 가는데 검은색 흰색 붉은색 녹색의 네 갈래 길이 나왔다. “형제는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잘 알고 있었다.”³³⁾ 형제들은 군주들의 이름을 맞게 말했다. 담뱃불을 새벽까지 꺼뜨리지 않았고, 개미를 시켜 금지된 꽃을 따왔다. 결국 공놀이 시험에서도 지하세계의 군주들을 이겼다.

이들이 아버지와 달리 지하세계를 잘 알고 군주를 이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지상의 사람이기만 했던 것에 반해, 이들은 지하세계의 여성을 어머니로 두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하세계를 이길 수 없었다. 지상의 사람은 지하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쌍둥이는 어머니의 지하세계에서 악한 군주들을 물리쳐야 하는 영웅적 소명을 받아들였

33) 고혜선, 위의 책, 89쪽.

다.³⁴⁾ 이 경우 아버지의 역할이 제주도나 『성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약화되어 있다. 심지어는 지하세계에서 죽기까지 했다. 그 점이 이 2부가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 배경인 이유인가 생각해볼 수 있다. 1부에서는 쌍둥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들이었다고 했다. 2부에서는 지하세계에서 군주들을 징치한다. 지상에서 일곱앵무새를 징치한 것과 지하에서 지하세계 군주를 징치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지상 또는 지하 세계의 악을 징치하고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어머니의 힘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배경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천상의 존재는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들을 낳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아들에게 넘기면 되기에 더 이상의 활동이 없어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이라는 화소라는 점은 동일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쌍둥이 형제는 지하세계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하세계의 군주는 “그저 사람들에게 못된짓을 하는게 취미였을 뿐”이며 “호전적이었고 악과 죄, 불화만을 선동하는 자들이었다.”³⁵⁾ 이들을 징치하여 지하세계에 안녕을 가져온 것이다. 쌍둥이 형제는 이후 “하나는 태양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달이 되어 하늘의 천장을 비추고 땅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³⁶⁾는 것이 2부의 결말이다. 이로써 온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포폴 부』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다섯 단계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천지창조로부터 채창조, 천부지모의 아들이 탄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의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34) 정혜주는 이들이 “지상의 사람과 지하세계의 피가 섞여서 나타난 존재”라는 점을 말하고 이들이 “영웅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지적했다. 정혜주, 『고전기 마야문명 공놀이의 주인공들』, 『스페인어문학』 59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1, 366쪽.

35) 고혜선, 위의 책, 117쪽.

36) 고혜선, 위의 책, 119쪽.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고 어떤 부분을 상세화하고 강조하는가 하는 점도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열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V. 신화적 가치관의 비교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먼저 제주도의 창세신화를 통해 기본적인 서사 열개를 추출했다. “1. 천지개벽(천지창조)-처음 상황, 2. 천지 재창조-문제와 해결 시도, 3.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주인공 탄생, 4.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문제 해결, 5. 지상적 질서 세움-새로운 질서와 미완의 문제”의 다섯 단계를 가진 구조를 보여준다.

이 열개를 기준으로 『성서』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다. 예수의 경우도 천지개벽(천지창조)의 처음 상황, 악을 해결하는 일차적 시도인 천지 재창조, 실패를 해결할 주인공이 천부지모의 아들로 탄생하는 대목까지 많이 유사하고, 다음의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하는 것과 새로운 지상적 질서 세우기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구조는 같고 구조 내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포폴 부』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다섯 단계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천지창조로부터 재창조, 천부지모의 아들이 탄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의 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고 어떤 부분을 상세화하고 강조하는가 하는 점도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열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이 세상의 유래를 설명하고 지금 현실의 상황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지자 곧바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문제들, 고통을 주는 자연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왔고 이를 일차 수정했으나 근절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이를 해결할 인물이 요구되었고 그는 초월적 능력과 지상적 문제의식을 가진 존재여야 해서 이른바 천부지모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설정이 공통되었다. 여기까지는 세 이야기가 대

단히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세계의 문제에 대처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의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해와 달을 조정하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툰 결과 이 세상에는 도리어 악이 횡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서』의 예수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려하는데 이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포폴 부』의 쌍둥이 형제는 지하세계의 군주를 징치하고 스스로 해와 달이 됨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구현되었다.

이들의 행동의 결과가 지금의 이 세상이다. 그것은 이 신화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계의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포폴 부』의 경우 악이 완전히 징치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없어졌고 완벽한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 그것이 희생인 듯하다. 『포폴 부』의 3부와 4부는 키체 족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희생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신들은 이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의 위대한 도시를 위해 할 일을 알려주었다.

우리에게 풀의 아들들을 주고, 들의 아들들, 네 발 달린 짐승의 계집, 새의 계집을 다오. 우리에게 너희들의 피를 좀 다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³⁷⁾

마야 문명이 광범위하고도 거둬되는 희생 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³⁸⁾ 이 희생은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37) 고혜선, 위의 책, 148쪽.

38) 존 헨더슨, 이남규 옮김, 『마야문명』, 기린원, 1999, 81쪽, 120쪽, 381쪽; 케네스 데이비스, 이충호 옮김, 『세계의 모든 신화』, 푸른숲, 2005, 565~574쪽; 정혜주, 『희생의례를 통하여 본 마야사회』, 특별전 '마야 2012' 연계강좌,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박물관문화대학, 2012년 9월 19~20일, 국립중앙박물관; 정혜주, 『태초에 빛이 있었다: 마야의 천지창조 신화』, 『이베로아메리카』 7권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2005, 57쪽.

태양의 젊음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신화에서 태양은 쌍둥이의 몸이었다. 지상의 질서를 가져다 준 쌍둥이의 몸인 태양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젊은이의 심장을 희생으로 바쳤다고 한다. 이는 현실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고 그 이유를 그 신화가 제공했을 것 같다.

『성서』는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고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해주러 왔다고 했지만 예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상에는 악이 지속될 것이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하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³⁹⁾

악은 지속될 것이지만 선인은 예수가 재림하여 세상의 악을 일소할 때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 지금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을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은 비정상이고 악마적이며, 하나님과 예수의 질서가 아니어서 이 둘을 극명하게 나누어놓으면서도 현실에서의 악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몸은 현실에 살지만 내 나라는 이 현실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창세신화는 이보다 더 비관적 또는 현실적이다. 악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 존재 이유를 부여한다. 소별왕이 이 세상을 차지했기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악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세상과 대조되는 것은 저승이다. 저승의 법은 맑고 공정한 참실같은 법이라고 했다. 그러니 맑고 공정한 세계에 살려면 저승에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승에 사는 한 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악이 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으니 저승에 가지 않는 한 악을 없앨

39) 요한계시록 22장 11~20절.

수는 없다. 이는 비판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악은 늘 존재한다. 앞으로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망이다. 인간이 있고 세계가 있고 선이 있는 한 악도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검토하고 악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이다.

그래서 초감제에 이어지는 제주도 곳의 여러 제차에는 악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여성을 겁간하려는 <이공본풀이>의 장자나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이, 남의 재물에의 탐욕으로 살인을 하는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귀일의딸이나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각시, 하층민을 괴롭히는 <초공본풀이>의 삼천선비 등 악과 악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현실의 악을 인정하고 악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암시하는 기능을 하기에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창세서사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먼저 제시했다. 이 신화가 천지창조 또는 개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불완전함 또는 악인의 출현으로 인해 홍수 등으로 천지를 재창조하고, 그래도 지속되는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 인물의 출현이 필요한데 이는 하늘의 초월적 존재와 지상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탄생한다. 이 인물이 지상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상의 현재의 질서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신화가 근동 지역에 뿌리를 둔 『성서』 그리고 메소아메리카의 오래된 문명이었던 마야의 『포폴 부』와도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서』의 경우 하나님의 창세 과정이 상세히 진술되고, 지상의 악이 만연하게 되어 노아 홍수 또는 룯의

경우 유흥불로 세상을 재편하는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악으로 인해 이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필요했으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 지상의 마리아에게 들어와 예수가 탄생했다. 예수는 이 지상에서의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했다. 다른 차원의 질서를 제시한 것이다.

중앙 아메리카의 『포폴 부』도 창조주의 창세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을 만들었지만 불완전해서 홍수로 이들을 제거한다. 지상의 악을 쌍둥이 형제가 징치한다. 이 쌍둥이 형제는 지상에서 지하세계로 내려간 훈 후나프의 침에 의해 임신한 지하세계의 소녀 익스퀴이 낳았다. 이들이 지하세계의 악을 섬멸한다.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지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인물의 영웅적 활동을 그리는 점에서 닮았다. 이 인물은 지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상적 존재여야 하기에 지상의 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지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기에 하늘의 아버지가 요구된다. 여기까지는 공통되지만 한데, 이후 이 인물의 활동 내역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노정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 세상을 차지했기에 이 세상에는 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에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악에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는 예수가 제시한 방안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중앙아메리카의 고대문명들은 가혹한 희생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어쩌면 신화에서 보여준 바 쌍둥이 형제가 세상의 악을 완벽하게 징치하고 자신들은 해와 달로 좌정했으므로 이 정화된 세상이 더러워지거나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사회의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라는 작은 섬의 신화 구조 분석에서 시작한 작업이 근동지역의 성서 신화와 중앙아메리카 대륙의 포폴 부 신화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살

핍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접근해보았다고 생각된다. 신화는 사실을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하자는 것이다. 그 가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더 탐구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강성열, 『성서의 창조기사와 한국의 창세신화』, 프리칭아카데미, 2009, 1~155쪽.
- 고혜선 옮김, 『마야인의 성서 포폴 부』, 문학과지성사, 1999, 1~207쪽.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411쪽.
- 신연우,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 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357~408쪽.
- 양다혜, 「중국창세신화와 성서〈창세기〉 비교연구; 천지창조 인류창조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97, 1~80쪽.
- 이태인, 「창세기와 중국 창조신화」, 『창조론 오픈 포럼』 8권1호, 전자저널 논문, URL; (<http://www.dbpia.co.kr/Article/3392022>), 2004년 2월.
- 정영찬·김용범, 「문화적 합의의 관점으로 본 몽골 설화와 성서의 ‘창세 신’ 비교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37, 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295쪽.
- 정혜주, 「고전기 마야문명 공놀이의 주인공들」, 『스페인어문학』 59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1, 357~389쪽.
- 정혜주, 「태초에 빛이 있었다: 마야의 천지창조 신화」, 『이베로아메리카』 7권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2005, 31~62쪽.
- 정혜주, 「희생의례를 통하여 본 마야사회」, 특별전 ‘마야 2012’ 연계강좌, 제2기 은하박물관학교·박물관문화대학, 2012년 9월 19~20일, 국립중앙박물관, 1~16쪽.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506쪽.
- 현길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1~312쪽.
- 『한일대조 성경전서』(개역개정판/신공동역), 대한성서공회, 2002.
- 노드롭 프라이, 김영철 옮김, 『성서와 문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1~354쪽.
- 존 헨더슨, 이남규 옮김, 『마야문명』, 기린원, 1999, 1~470쪽.
- 케네스 데이비스, 이충호 옮김, 『세계의 모든 신화』, 푸른숲, 2005, 1~655쪽.
- Otto Rank,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A Vintage Book V70, 1960, pp.1~315.

A Comparative Study of the Bible, Popol Vuh and the Creation Myth of Jeju Island

Shin, Yeon-Woo*

I compared the structure of the 3 myths - the creation myth and Jesus stor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K'iche' kingdom in Guatemala's western highlands Popol Vuh's prominent features of creation myth and epic tales of the Hero Twins Hunahpú and Xbalanqué, and the creation myth and the Hero twins bet in the songs of the shamanic ritual of Jeju Island, Korea.

I used the narrative structure of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the shaman songs of Jeju Island, which I floated before; 1. Cosmic Creation(the first condition), 2. Re-creation(problem and attempt to solve it), 3. Birth of the son of heavenly king and earthly mother(birth of the hero), 4. the son's solving of the problem(problem solving of the hero), 5. setting up the order of the earth(new order and unfinished problems).

I could arranged the story of the Bible based on the same framework. The first condition is the God's cosmic creation. The Flood as a recreation,- a problem solving. And Jesus was born between heavenly God and earthly mother Maria. God's son Jesus showed the new solution, the heavenly kingdom. He established a new order, the Christendom in the world.

The narrative structure of Popol Vuh is as much as the shaman songs of Jeju Island, and the Bible; Cosmic Creation and Recreation, the birth of heroes,

* SeoulTech

the problem solving, and new order of the world. Even though the detailed narratives are different among the three, we can say that the framework of 5-step sequence is similar. But their meanings are not the same.

The shaman songs of Jeju Island told us that the evil will last in this world for the little brother win the game by trick method. Man can not help living without the various wickedness. We ought to admit the evil of this world and tried to have precaution. In case of the Bible man denies this world and waits for the Second Coming as Jesus presented the Heavenly Kingdom. The ancient Meso-American civilization was famous for the merciless sacrifices; it is because we should keep this world pure and strong as the twin heroes repulsed the wickedness. The heroes became the Sun and Moon, so we ought to keep them not to be weak or vanish away.

[Key Words] Jeju Island, Creation Myth, shaman epic, <Chogamje>, <The Bible>, <Popol Vuh>

※ 이 논문은 2015년 6월 29일 투고되어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8월 10일 수정 완료하여
 2015년 8월 17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